

[사회]



‘立春 三災’ 소멸기도 행렬

입춘(立春)인 4일, 대한불교 조계종 무등산 중심사(忠心寺)에 수많은 불자(佛子)들이 ‘입춘 삼재(三災) 소멸기도’를 드리기 위해 줄을 잇고 있다. 불가에서는 전통적으로 입춘을 맞아 한 해 동안의 가내 평온과 만사형통을 기원하는 법회(法會)를 봉행해 왔다. 올해 삼재는 뱀(巳)·닭(酉)·소(丑) 띠다.

근로자 15% “건강 이상”

순환기 질환·소음성 난청 등 판정... 질병 만인율 2004년 400명→2005년 513명

2005 건강진단 분석결과

국내 노동자들의 15%가 순환기질환이나 소음성 난청 등의 질환이 있거나 질환 여부를 관찰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노동부에 따르면 25만4천577개 사업장의 근로자 257만2천105명을 대상으로 2005년 실시된 건강진단 결과를 분석한 결과, 전체의 15.2%에 달하는 39만2천75명이 일반질환·직업병 유소견·질환요관찰 등의 이상 소견 판정을 받았다. 유형별로 보면 ‘질환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커 관찰이 필요하다’는 요관찰 대상자가 25만7천796명(65.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일반질환

유소견자 13만1천899명(33.6%)·직업병 유소견자 2천380명(0.6%) 등이었다. 일반질환 유소견자의 질병 종류는 ▲순환기질환(41.2%) ▲소화기질환(24.4%) ▲내분비질환(15.0%) ▲빈혈 등 혈액질환(4.1%) ▲신경감각기질환(3.8%) ▲호흡기질환(2.4%) 등 순이었다. 직업병 유소견자의 질병 종류는 ▲소음성 난청(86.5%) ▲진폐증(11.0%) ▲금속·중금속 중독(1.7%) 등으로 조사됐다. 전체 노동자 1만 명당 일반질환 유소견자 수와 직업병 유소견자 수를 나타내는 ‘만인율’이 높아져 근로자의 건강이 전반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사망 만인율(死亡 萬人率) = 사망자수의 1만배를 전체 근로자 수로 나눈 값. 전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산재로 사망한 근로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할 때 사용하는 지표다.

분석됐다. 일반질환 유소견자의 만인율은 2004년 399.7명에서 2005년 512.8명으로 높아졌다. 직업병 유소견자 만인율도 2004년 8.1명에서 2005년에는 9.3명으로 증가했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대기업 대졸 신입사원 채용때 외국어 능력·발표능력 중시

대기업들은 대졸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서류전형에서는 외국어 능력, 면접 때는 발표능력을 가장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기업은 서류전형시 지원자의 전공을 가장 중요시하고 면접 때는 업무지식과 자신감이 높은 점수를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 4일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대기업 63곳과 지방 유망기업 160곳 등을 대상으로 대졸 신입사원 채용기준을 조사한 결과, 대기업들은 서류전형을 할 때 1천점 만점 기준으로 외국어 능력에 가장 높은 190점을 배정했다. 이어 자기소개서(183점), 졸업

학점(160점), 전공(138점), 출신대학(133점) 등의 순이었다. 대기업의 면접시험에서는 발표능력(232점)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지방기업들은 서류전형에서 전공(202점)·학점(176점)·자기소개서(165점)·외국어능력(139점) 등을 면접에서는 업무지식(231점)·자신감(208점)·면접태도(192점) 등을 중요하게 여겼다. 대기업들은 최종 합격자 결정 때 지원자의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47.3%)을, 지방기업들은 태도와 성격(41.7%)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연합뉴스

공중 여자화장실 변기 세균 ‘득실’

평균 71만마리 검출

시외버스터미널과 지하철역 구내 공중 여자화장실 변기에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세균들이 득실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울대는 4일 강남고속터미널 호남선 등 서울 시내 공중 여자화장실 5곳의 서양식 변기에서 대장균군(群) 세균 17종 중 31종의 세균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5개 여자화장실의 서양식 변기에서 평균 71만마리(10cm당 3천800마

리)의 세균이 검출됐다. 조사 대상 중 세균이 가장 많았던 강남고속터미널 경부선 여자화장실에서 채취한 시료의 세균 수는 자그마치 200만 마리(10cm당 1만마리)나 됐고, 호남선 여자화장실도 13만 마리(10cm당 670마리)에 달했다. 검출된 세균 31종 중 8종류는 병을 일으킬 수 있는 ‘기회감염균’이었다. 패혈증을 유발할 수 있는 아시네토박테라 포도상구균이 각각 3곳과 5곳에서 검출됐다. /연합뉴스

15개 민원사무 간소화 행정부 오늘부터

행정자치부는 건설교통부 등 7개 부처의 15개 민원사무와 관련한 구비서류를 간소화한 ‘민원사무 처리기준’을 마련해 5일부터 시행한다. 각종 민원사무를 처리할 때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 지 확인하려면 정부의 ‘통합전자민원장구’(www.egov.go.kr)에 들어가 ‘민원종합안내’를 누르면 민원사무 5천여 종의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를 자세히 알 수 있다. /연합뉴스

민노총 지역본부 광주·전남 분리

노동계 투쟁 강도 세질 듯

조합원 8만 명 규모의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가 다음달 10년간의 한 지부 생활을 끝낸다. 광주·전남본부의 분리는 전남지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자체 분석에 따른 것으로, 향후 전남 노동운동의 조직력과 투쟁 강도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 본부 준비위원회는 6일 오후

북구 신안동 지역본부 사무실에서 본부 분리 및 임원 직선제에 대한 설명회를 갖는다. 전남본부 준비위도 순천에 전남본부 사무실을 개설하고,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안과 선거 규정안을 확정했다. 본부는 또 조합원들이 직접 선출하는 임원(본부장·사무처장) 선거를 3월16~20일 실시한다. /임주형기자 jhlim@

Weather forecast for February 5th (Monday, 18th lunar day). Includes a table of temperatures for various cities (e.g., Seoul, Busan, Jeonju) and a map of Korea showing weather patterns. Also includes sunrise/sunset times and moon phases.

아니 벌써 황사가...

4일 오후 첫 발생. 백령도는 시간당 301µg/m³, 관악산 293µg/m³, 태안 격렬비도 257µg/m³ 등을 기록했다. 이날 오전 7~8시 백령도와 서해안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최고를 기록했으나 오후 2시를 기점으로 점차 농도가 낮아지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날 황사로 인한 미세먼지 최고 농도는 경기 강화 석모리 측정소 436µg/m³, 충남 태안 파도리 측정소 358µg/m³ 등을 기록해 황사 주의보(500µg/m³) 수준에 근접했다. /연합뉴스

실업계 고교에 취업 지원금 준다

학교당 年 4,000만원. 광주지방노동청은 4일 실업계 고교생의 취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모두 4억4천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실시되는 ‘실업계고교 취업지원기금확충사업’은 노동청이 광주 지역 실업계 고교에서 ▲직업지도 프로그램 운영 ▲직업진로 상담 ▲취업행사 등을 실시하거나, 일선 학교가 직업진로정보센터를 설립할 경우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원 금액은 학교당 연간 최대 4천만원이며, 실적 부진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간 지원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12일부터 23일까지며, 다음달 ‘지방고용심의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교는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취업지원 사업 실적, 취업지원 인프라 현황 등을 첨부해 광주 종합고용지원센터에 보내면 된다. 문의는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또는 고용안정센터(1588-1919).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Large advertisement for 'Jeonnam Gosihakwon' (전남고시학원) featuring various exam preparation courses like '공무원 특강' (Civil Service Exam Special Course) and '중개사 특강' (Interpreter Special Course).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and phone numbers.